

“근원물가 둔화속도 예상보다 더더”... 최종금리 3.75% 가닥

한은 기준금리 동결

경제성장률 1.6%→1.4% 하향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전망
“현재 금리 수준 유지하며 점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융통화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만 이들은 최종금리 인상 수준을 3.75%로 잡았다. 소비자물가가 예상한 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의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통화결정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7월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올해 상당 폭 낮아진 뒤 높아져 연말에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근원물가의 경우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으로 예상치(3.0%)를 상회하는 3.3%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로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근원물가 둔화속도가 더딘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수준에서 유지한 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상저하고 패턴, 한 분기 정도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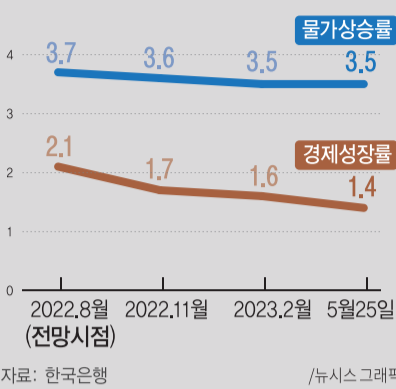
이날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4%로 낮췄다. 지난 2월 1.7%이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조정한 뒤 또 다시 낮춘 셈이다.

이 총재는 “이번에 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IT와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또 중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느리고, 회복하더라도 내수 중심이다 보니 주변국들에게 전파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인 면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IT·반도체 경기와 중국 경제 회복에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만 제외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기회복, 파급효과 등이 부진해 1.4%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더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한국은행 /뉴시스 그래픽

높아진다는 상저하고(上低下高)가 가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분기 정도 밀리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1.4%의 성장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현재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이 1.3%대”라며 “제조업 중심, 특히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이 정도의 성장을 두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반기 반도체 경기와 중국경제가 회복되면 1.4%에서 더 오를 수도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 금리인하 국면시 부채 문제 강조... 경기침체 가능성 우려

이날 이 총재는 금리인하 국면에 들어갈 때 가계부채 등 전체 부채 문제는 주요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어설 경우 장기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05.1%다.

이 총재는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1 분기에는 떨어졌지만 5월을 보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며 “취약계층을 도와

주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경기가 잠재성장률보다 아래에 있고, 이자도 3%p까지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인하 국면에 들어갈 때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등 부채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리인하 관심집중... “시기 예단 일러”

>> 1면 ‘기준금리 연속 동결...’서 계속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투자자들이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해 외화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 우려와 달러 원·달러 환율은 1310원에서 1320원대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 금리인상 부담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관심사는 금리인하 시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경제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융비용이 줄어 들고, 환율 상승으로 수출에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 총재는 연내 인하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3%p 금리인상만으로 목표수준(2%대) 달성이 가능한지 지켜봐야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조금하게 내릴 경우 금융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물가가 확실하게 2%대에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인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합작법인 설립 등 대규모 투자... “中 의존도 낮출 수 있을 것”

>> 1면 ‘전구체 내재화...’서 계속

공장이 자리를 잡으면 연간 10만톤 규모로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게된다. 전구체 10만 톤은 전기차 100만여 대(500km 주행 가능한 75kWh 용량 기준)에 사용 가능한 분량이다.

포스코퓨처엠도 화유코발트와 손

잡고 포함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2027년까지 전구체 생산 공장과 전구체 원료 중 하나인 니켈 원료 생산설비를 갖춘다. 연간 1만5000톤 규모에서 44만톤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내재화율을 14%에서 73%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LG화학은 온산산업단지에도

려야연 계열사인 캠코와 함께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설립해 내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합작법인은 캠코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메탈 뿐만 아니라 폐기물인 스크랩(Scrap)과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사이클 메탈도 함께 활용해 전구체를 생산한다. 합작법인의 리사이클 공정은 건식

과 습식 공정을 결합하여 기존 공정 대비 메탈 회수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SK온은 에코프로, 중국 거린메이와 전구체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설립하기로 올해 1분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최대 1조2100억원을 투자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생산량 약 5만톤 수준의 전구체공장을 짓는다. 지이엠코리아는 전구체 생산능력을 순차

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방침이다.

배터리 소재업계 관계자는 “당장 중국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업들의 공장이 지어지면 점차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전망”이라며 “소재 내재화는 배터리 개발만큼 중요한 영역이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